

음악이 흐르는 학교 훈훈 여수는 '감성교육 일번지'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지난 24일 열린 '2015 여수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시전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하고 있다.

여수시가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일선 학교 학생들의 예술 역량을 키워주는 등 '감성교육 도시'로 우뚝서고 있다. 교실마다 노래가 가득하고, 예술을 통한 감성교육으로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수 '감성교육의 산실(産室)'로 꼽히는 여수소호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이 지난해 베를린 장벽 아래에서 독일 어린이들과 펼친 한·독 협연 평화의 하모니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다.

소호초는 지난 4월 여수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개막식 식전행사 등 굵직한 주요 행사에 초청받을 만큼 수준급 연주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여수예술마루에서 분단 65주년·광복 70주년을 기념, 독일 베를린 음악학교 유명 음악가들을 초청해 소호초 오케스트라단과 여수교직원합창단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

◇오케스트라로 활짝 핀 여수 감성교육=여수시의 감성교육은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2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및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 지원청'으로 선정된 이후 감성교육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오케스트라단 활동 활발 24팀 학생 1150명 참여

유명 음악가 초청 공연 등 여수교육청 꾸준한 지원

여수교육청은 전국 12개 지원청 중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시상금 5000만원과 지속적인 감성교육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012년 8곳의 지역 초·중·고교 학생 오케스트라단 운영학교 첫 선정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감성교육의 출발을 알렸던 여수교육청은 그동안 꾸준한 예산지원과 활성화 정책으로 2015년 현재 24개팀 11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감성교육 도시를 이뤄냈다.

오케스트라단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지원될 36억5000만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던 여수교육청은 여수시와 함께 올해만 이들 오케스트라단에 총 8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감성교육 연계와 지속화를 위해 오케스트라단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 합창단과 학생 연극부도 지난 2012년부터 운영중이다. 여수 소호초 학생·학부모 합창단을 비롯한 16개 합창단과 지역 초·중·고 21곳을 운영하고 지역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마련, 확대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

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감성교육 집중 지원에 성과도 이어져=감성교육 집중 지원에 따른 성과도 계속되고 있다. 여수교육청은 지난 2013년 2월 GS예술마루 대극장에서 관내 초·중·고교 12개 팀과 교원교향악단 1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 종합예술제'를 처음 개최했다. 이후 매년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축제로 자리잡은 감성축제는 올해 오케스트라 페스티벌과 연극페스티벌, 학생·학부모 합창단 페스티벌이 연이어 열리면서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선 지난 24일부터 이틀동안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열린 '제4회 학생·학부모 합창단 페스티벌'은 16개팀이 참여, 1000여 명의 관객과 감동을 함께 나누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일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열린 '제4회 학생·학부모 합창단 페스티벌'은 16개팀이 참여, 1000여 명의 관객과 감동을 함께 나누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최성수 여수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높고 인성교육에 으뜸인 음악교육을 주축으로 한 다양한 감성교육이 여수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지는 등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히든베이 호텔에 대형 컨벤션센터 조성

750억원 투입 2017년 완공 여수 MICE산업 활성화 기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한 '여수 히든베이 특급호텔'에 대형 컨벤션센터가 조성된다.

여수시는 30일 "히든베이 호텔사업자인 흥해개발(주)이 7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지상 8층(지하 5층) 규모에 230개 객실을 갖춘 1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은 지난 23일 여수시간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세부 실시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히든베이 컨벤션센터가 차질없이 완공될 경우 그동안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각종 국내외 대형행사 개최가 가능하면서 여수시 MICE 산업과 여수관광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ㄷ자 형 설계로 조성될 히든베이 컨벤션 센터는 모든 곳에서 오션뷰(바다 조망)를 즐길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또 아름다운 바다위 야외 결혼식과 콘서트 등 다양한 대형 행사 유치가 가능할



오는 2017년 대형컨벤션센터를 조성할 계획인 여수 히든베이 특급호텔 전경.

맞춤형 시설 조성을 통해 호텔과 함께 지역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대형행사 유치가 가능한 히든베이 컨벤션센터가 빠른 시일내 완공돼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여수시도 윈스톱 행정서비스 등 행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순수 지역자본으로 건립된 여수히든베이 특급호텔은 전 객실이 신월동 해변 절경을 낀 가막만을 바라보도록 건설됐다. 여수세계박람회기간 공식 지정 숙박업소로 지정돼 독일, 이탈리아, 케냐, 오만 등 각국 대사와 장관 등 국내외 귀빈과 허영만, 용재 오닐, 이장호 감독 등 유명 예술인의 숙소로 사용되면서 전국을 대표하는 숙박 명소가 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GS칼텍스, 복지시설 24곳에 사무용 가구 635점 전달

여수 대표 지역기업인 GS칼텍스가 복지시설 지원에 나섰다.

30일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부회장) 여수공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여수시 적량동 우순도에서 'GS칼텍스와 함께 하는 사랑의 사무용 가구 나누기' 행사를 열고 복지시설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635점을 여수지역 복지시설 24곳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행사에는 GS칼텍스 김형순 전무와 사내 자원봉사대, 이상우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복지시설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이날 복지시설에 기증한 책상, 의자, 책장, 테이블, 에어컨 등 사무용품은 모두 11가지 종류로 8000여만원 상당에 이른다. 기증대상 복지시설과 필요 가구 등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연합회와 협의해 선정했다.

GS칼텍스여수공장 김형순 전무는 "지역기업으로 사무용품 기증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되롭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GS칼텍스여수공장 직원들이 최근 지역 복지시설에 8000만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실질적 지원을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꾸준한 사랑 나눔을 펼치고 있다. 매년 교체되는 300여대의 업무용 컴퓨터를 정비해 전남도내 복지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장 임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의류·도서·생활용품 등을 지역아동센터와 섬지역 초등학교 등에 기증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는 매년 국내 최대 나눔 행사인 '위아자 나눔장터'를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지원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축구명가 부활 시동 생체협회장기 대회 우승

여수가 축구명가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여수시와 여수시축구연합회 등에 따르면 여수 축구대표팀은 지난 21일부터 이틀동안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제25회 전라남도 생체체육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출전해 우승했다.

여수대표팀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무안군에서 개최된 제2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최근 전남지역 대회를 2회 연속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 7월 여수시통합체육회의 출범에 맞춰 여수시축구연합회가 기존 엘리트 축구협회와 생체체육협회를 통합하면서 축구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여수시는 지난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 선수권대회 4강진화의 주역인 신연호·노인우 등 대표 선수와 월드컵대표를 지낸 고종수 선수를 배출한 호남 대표 축구명가다.

여수 출신으로 최근 아시안게임 대표로 뛴 김민혁(일본 사간도스 소속)과 U15 대표인 김민혁(광양제철중), U12 대표인 정종훈, 정지후(미평초) 등의 활약도 여수의 축구 명가 부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울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쪼갬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쪼갬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